

IT전공자들의 취업 전후의 취업 인식 비교

안유정⁰, 김경아*, 김지심*, 오 석**, 진명숙***

⁰명지전문대학 컴퓨터공학과,

*명지전문대학 컴퓨터공학과,

**명지전문대학 정보통신공학과,

***명지전문대학 인터넷보안공학과

e-mail: {yjahn⁰, kakim*, jisimkim*, ohsuk**, msjin***}@mj.ac.kr

A Comparison of IT Majors' Perceptions of Employment before and after Employment

You Jung Ahn⁰, Kyong Ah Kim*, Ji Sim Kim*, Suk Oh**, Myung Sook Jin***

⁰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Myongji College,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Myongji College,

**Dept. of Information Technology & Communication, Myongji College,

***Dept. of Internet Security Engineering, Myongji College

● 요약 ●

최근 취업에 청신호가 켜진 IT분야에서 전공자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선 취업 후 실무 역량을 강화해야 할지 또는 실무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난후 취업해야 할지는 직무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열심히 취업을 준비해온 학생들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취업 지도를 하는 교수자로서 자신이 가진 역량에 비해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IT분야 기 취업자들에게 취업 시 필요한 역량에 대한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제 취업에 성공한 취업자들의 의견을 통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키워드: 취업 인식(Employment Perception), 취업 역량(Employment Competency), IT 취업 준비(IT Job Preparation)

I. Introduction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좋은 취업 지원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일 때가 많다.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역량을 부족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쌓은 뒤 취업하겠다고 취업을 미루는 경우가 꽤 많았다. 그러나 특정 직군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차이가 커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역량이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많으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설득하여 IT 기업에 지원하게 하여 합격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IT 전공자들의 취업 역량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IT전공 학생들과 기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 목표는 IT 전공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실제 취업에 성공한 취업자들의 의견을 통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Research Summary

본 연구에서는 IT전공자들의 취업 전후의 인식 조사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대학 재학 중인 취업 준비생들과 기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응답 결과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 설문 대상자들의 정보

먼저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에 취업 전인 IT전공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Information about IT Major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구분	상세	인원(명)	비율(%)
소속 학과	인터넷보안공학과	41	19.6
	정보통신공학과	69	33.0
	컴퓨터공학과	99	47.4
	소계	209	100.0
학년	2학년	107	51.2
	3학년	102	48.8
	소계	209	100.0

우리 대학 공학계열 내 3년제 IT 관련 3개 학과의 재학생들 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마인드를 가진 2, 3학년 학생들을 설문에 참여시켰다.

또한 동일한 세 학과의 졸업생들 중에 IT분야로 취업한 취업자들 101명도 설문에 참여시켰는데 이들의 90%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들이며, 이들의 직무 영역은 개발자, 엔지니어, IT기획자 등 다양한 IT직군들이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Information about IT Employee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구분	상세	인원(명)	비율(%)
졸업 학과	인터넷보안공학과	17	16.8
	정보통신공학과	19	18.8
	컴퓨터공학과	65	64.4
	소계	101	100.0
직장 유형	공공기관(공기업)	2	2
	대기업(자산 5조 이상)	1	1
	중견기업(자산 5천억~)	4	4
	중소기업	91	90
	연구소	1	1
	창업	1	1
	프리랜서	1	1
	소계	101	100.0
총 직장 경력	1년 미만	9	8.9
	1~3년 미만	62	61.4
	3~5년 미만	11	10.9
	5~10년 미만	19	18.8
	소계	101	100.0

III. Survey Analysis Results

IT 전공 취업자와 취업 전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면 취업 후 역량을 키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Fig.1과 같다. 이 설문에

대해 취업자들의 77.5%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선택하였는데, 주관식 답변을 통해 취업 전 준비한 역량보다는 실제 취업 후 실전을 통해 빠른 시간에 많은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으므로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취업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는 답을 하였다. 그에 비해,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은 57%만이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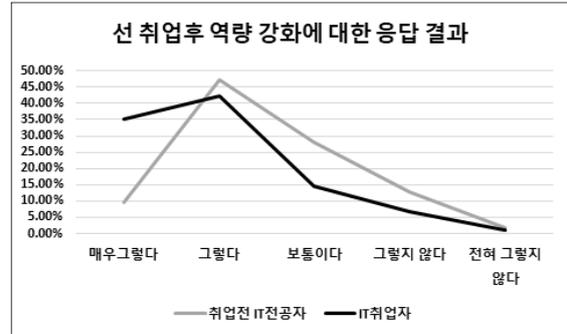


Fig. 1. The Survey Analysis Results of Employed and Job Seekers

IV. Conclusions

최근 취업에 청신호가 켜진 IT분야에서 전공자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선 취업 후 실무 역량을 강화해야 할지 또는 실무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난후 취업해야 할지는 직무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열심히 취업을 준비해온 학생들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취업 지도를 하는 교수자로서 자신이 가진 역량에 비해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IT분야 취업자들에게 취업 시 필요한 역량에 대한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제 취업에 성공한 취업자들의 의견을 통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REFERENCES

[1] Myung S. Jin, Kyong A. Kim, Ji S. Kim, You J. Ahn, Suk Oh, "Research on Employment Mind-building Programs and Learning Methods to Strengthen Career Competencies in the IT Field", Research Report of Teaching and Learning Center, Myongji College, Nov. 2022.